

경제정책협의회

- 격려사 -

지난 98년 외환위기를 당했을 때 외환위기를 지내놓고 보니까 상당히 그 이전부터 위기요인이 배태해있었고 병이 깊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미처 체계적으로 감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기징후가 가시화됐어도 그때그때 판단이나 위기관리 매뉴얼이 없어 대처방법에 대해 적절한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경제에서 진행되고 있는 병적인 요인이나 위기요인을 확인 못하고 간과되는 일이 있어서 안도겠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준비 안 된 대처로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미리 제도화하는 것이 위기 관리시스템의 취지입니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 위기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고 하나하나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척도를 만들고 대처 방법까지 미리 정하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방대한 작업을 한 것에 노고를 치하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적용해가면서 발전시켜 나가고 위기징후를 파악하고 대처 방법을 완전하게 갖춰가도록 노력합시다.

이번에는 과학적 증명이 가능한 통계적 수치로서 위기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그 외 각 분야에서 현장의 체감 요소 등 전체 거시적으로 잡히지 않는

미시적인 부분, 경제 취약분야 고통이 집중될 수 있는 분야의 여러 징후를
미리미리 감지할 수 있는 현장통계를 보조적지표로 개발해서 이게 좀 더
실효성이 높아지도록 보완해 주십시오.

경제 분야 외에 정치 안보 사회분야는 NSC에서 오래전에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국가전체의 중요 위기관리 매뉴얼은 만들어졌고 세부적인
것은 각 부처의 몫입니다. 지난번 동해에서 화물선이 조난당해 북한 관리
수역에 출동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했던 것이 매뉴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